

근로정신대 소녀들의 “아라리요~ 아라리요~” 몽클

광주문화재단 연극 '봉선화' 리뷰

일본 나고야 시민연극단 협력작
강제노역 할머니들 투쟁 그려져
우리 정신 다음 세대로 계승될 것

붉은 봉선화가 스크린에 피어 오른다. 한겨울 북풍 한살을 이겨내며 꽃망울을 틔워낸 가녀린 꽃 봉오리.

식민지 시절 일본으로 강제노역을 떠났던 조선 소녀들의 피멍을 보는 듯하다.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꽃말마저 유독 애달프다.

공연 중반, 일본인들이 서투른 발음으로 "아라리요, 아라리요"라고 읊조리는 곡소리가 아득히 허공으로 퍼진다. 발음의 정확성은 중요치 않다. 소녀들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긴 일본이었지만, 80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일본 시민 배우들이 고발하는 일제강점기 인권유린의 역사는 보는 이를 먹먹하게 했다.

지난 24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 연극 '봉선화'는 38년 동안 이어져 온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극화한 작품이다. 광주문화재단과 일본 나고야 시민연극단의 협력작으로, 이번 광주 공연은 해외 무대로는 첫 선을 보이는 자리였다.

"급요일 사다가와 역은 빛으로 가득합니다, 결코 잊지 않는 인간의 따뜻함이 당신에게서 전해져요."

공연은 부드러운 노래와 함께 역사(驛舍)에 떨어진 전단지 한 장을 학생 후지 하루카(이마이 미츠코 분)가 주워들며 시작된다. 전단에는 '피사 아이치'라는 역사-치유 봉사팀에서 교과서 밖 역사교육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써 있다. 이후 작품은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며 무대 위에서 생생한 역사를 보여주며, 태평양전쟁 종식 10여 년 전인 1944년 식민지 조선 탈취의 잔혹한 현장을 재현한다.

극은 일본 여학교 진학을 빌미로 조선 여학생들을 '정신대원'으로 현혹하는 내용도 다룬다. 아버지 인감도장을 가져오라는 일본 헌병과 교장의 협박·회유에 소녀들은 눈물을 머금고 나고



연극 '봉선화'이 지난 24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졌다. <광주문화재단 제공>

야 미쓰비시 중공업 도덕공장으로 가게 된다. 그곳에서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모진 핍박과 중노동. "반도인" 들은 행동이 느리다"는 감독관들의 폭언과 겁박은 여러 소녀들의 가슴에 피멍을 남긴다.

조선인 근로정신대원은 연장자라 해도 14살에 불과했다. 이들은 매일 장아찌만 먹으면서 하루하루 버텼고, 작업 중 손가락 관절이 끊어지는 비극 등을 겪었다. 작중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 역을 맡은 배우가 "일인들은 그 손가락 마디를 공기놀이 하듯 주고 받으며 놀았다"는 증언을 할 때, 관객들은 눈물을 흘리거나 한숨을 삼켰다.

1944년 12월 7일 발생한 규모 8의 동남해지진의 피해 현장도 재현됐다. 이 사고로 조선인 노동자 최정례가 공장 잔해에 깔려 사망하는 등 여학생 6명이 희생됐다. 일제가 방직공장을 '항공기 군수시설'로 개조하며 세웠던 가벽 등이 무너지며 피해가 더 컸다.

작품 후반부는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회'의 법정 투쟁기를 다뤘다. 1100여 명의 원고와 동점한 '전인 소송'의 지난한 과정 등이 담겨 있어 당시 아픔의 역사가 가능해졌다. 총 22회의 구두 변론과 12회의

원고 변론 등의 과정을 극으로 돌아보는 과정이었다.

이 같은 소송에도 불구하고 인권회복을 위한 원고들의 투쟁, 변호인단의 노력은 일본 법정에서는 '패소'했다. 그러나 국내 판결은 2013년 광주지법에서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을 선고했으며,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고 판결을 내렸다.

다만 현재까지도 일본과 미쓰비시 측은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한 '한일정구권 협정'을 근거 삼아 직접적인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작품은 문제의식을 환기했다.

"나고야와 광주의 바보'들의 싸움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의 정신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고 기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연 말미에 울려 퍼진 일본인 배우들의 구호는 울림을 준다. 물론 일본 내에서 기적 같은 '역전 재판'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작품은 '나고야의 물결'이 계속될 것임을 암시했다. 광주에서도 지난해 태평양전쟁정쟁생자 광주유족회(회장 이금주) 활동이 활발하게 진척될 정도로 '나비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김진수 '미로정원'

'현장의 눈빛' 광주·전남 보도사진전

광주·전남사진기자회 3월6~12일 광주신세계백화점 갤러리

광주와 전남에서 활동하는 사진가들이 지난 1년간 취재 현장에서 기록한 보도사진을 전시한다.

광주·전남사진기자회(회장 김진수)는 내달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 갤러리에서 2024 광주·전남 보도사진전을 연다.

'현장의 눈빛'을 주제로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광주·전남지역의 일간지와 뉴스통신사 소속 사진가들이 취재한 보도사진 80여 점을 선보인다.

신세계 갤러리 전시에 이어 23일부터 10일간 전남도청 윤선도홀에서 순회 전시가 예정돼 있다.

개막식에서는 1993년 아시아나 항공 추락 사고를 취재하다 순직한 박경원 기사를 기리고자 제정한 '박경원 기자상' 시상식이 열린다.

올해로 제19회째를 맞은 수상자는 조선일보 김영근 기자가 선정됐다. 김 기자는 11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전남 화순탄광의 마지막 출근길에 오른 광부의 모습을 담담하게 기록했다.

전시에서는 한국사진기자협회와 광주전남기자협회가 선정한 수상작을 비롯해 할아버지인 전두환 씨를 대신해 5·18 유가족에게 사죄한 손자 전우원 씨, 정윤성 공원 건립을 둘러싼 이념논쟁,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사·도민의 반응 등 광주와 전남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와 지역 축제 등을 사진기자만의 앵글을 통해 만들어낸 작품들을 만난다.

특히 올해는 한국영상기자협회 광주·전남지부 소속 동료 기자들이 제작한 영상 기록물도 함께 선보인다. 또 전시 안내 책자를 사진집 형식으로 제작해 소장 가치를 높인 점도 눈에 띈다.

전시장을 찾지 못하는 관람객을 위해 개막식 이후 광주·전남사진기자회 누리집에서도 온라인 전시를 진행한다.

김진수 광주·전남사진기자회장은 "환희의 순간, 좋았던 일도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전시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며 "사진기자 각자의 개성이 담긴 보도사진 작품을 부각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찰나적 순간, 영원한 느낌

조하나 '누드 크로키' 전, 29일까지 나주미술관

움직이고 있는 대상을 순간적으로 그리는 그림을 크로키라 한다. 세부 묘사보다는 대상의 중요한 특징이 화폭에 투영된다.

조하나 작가의 크로키 작품은 선이 굵으면서도 역동적이다. 대상이 여성 같기도 하지만 알핏 남성 같기도 하다. 무엇보다 빛이 주는 부드러움과 답답함 그려면서도 여백의 분위기는 여운과 함께 동적인 감성을 선사한다.

은은한 한옥의 기품이 서린 나주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조하나 작가의 누드 크로키전(29일까지).

'발칙한 Drawing'이라는 주제가 말해주듯 작가는 과감하면서도 대담하게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작품마다 대상의 특징을 빠르게 관찰해 드로잉한 듯한 일필휘지의 느낌이 묻어난다. 누드모델에서 발현되는 감정을 순간적으로 포착해 그것을

구현한 작가의 심미안이 예사롭지 않다. 미세한 필치보다는 굵은 선으로 짧은 순간 스케치하듯 그려낸 작품은 찰나적인 순간과 영원적인 느낌을 동시에 발한다.

작품은 기교를 드러내진 않지만, 사실은 기교를 위해 무수히 많은 시간 연마와 인고를 감내해야 했을 흔적 등이 투영돼 있다. 오늘날의 무기교 경지에 이르기까지 정진했을 시간들이 아득하게 다가온다.

결국 작가가 주목하는 것은 대상의 울림과 리듬에 깃든 인간의 내면 속결인 듯 싶다. 사유와 본질, 생명성 등이 필획과 연계돼 동시적으로 구현됐다 하겠다.

조 작가는 "서양적인 누드화의 형식을 벗어나 나만의 새로운 점묘화를 도입해 작품을 그리고 싶었다"며 "크로키 작품에 담긴 예술과 메시지가 관



'발칙한 Drawing'

객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5·18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3월 15일까지 44명 선발

5·18의 가치와 민주정신을 클래식으로 함양하는 '광주 5·18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한다.

광주 5·18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2024년도 신입 단원을 모집한다. 3월 15일까지 44명 내외에서 바이올린(24명), 비올라(8명), 첼로(8명), 콘트라베이스(4명)를 선발할 계획.

광주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3학년부부터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받는다. 주 1회 3시간 수업 진행하며 연습 장소는 광주 중앙초 대강당.

선발된 단원에게는 악기를 무상으로 대여(1순

위 대상자)해 주며 오케스트라 정기 교육을 특전으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민주인권교육 및 정기 연주회, 찾아가는 연주회 등 다양한 공연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다음 카페에서 단원모집 신청서를 다운 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5·18민주유공자 후손 및 관내 거주 초·중등학생은 선발에 우대한다.

임복희 예술감독은 "음악을 통해 청소년들이 5·18의 숭고한 정신과 민주인권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오케스트라를 꾸려 나가고 있다"며 "관내 청소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예술을 매개로 광주 정신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관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